

매드 메리지

Mad Marriage



w. 백슈

세션카드 커미션 ♦ 나룬님 (@NARooN_C)

약칭 ♦ 매메지

최종 수정일 ♦ 2024.01.06

이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연옥일 뿐이지.

개요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일 뿐이다.

Marriage is neither heaven nor hell, it is simply purgatory.

— 에이브러햄 링컨 (1809 - 1865)

몰락한 가문의 자녀인 탐사자는
미쳐버렸다고 소문난 KPC와의 정략결혼을 무시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던히 갈망하던 자유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죠.

KPC가 귓전에 속삭입니다.
느른한 숨결로 아릿하게….

선택해.
미친 결혼을 할 건지,
...미친 거래를 할 건지.

이 결혼은,
자유를 거머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시나리오 정보

-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 **인원** 1:1 타이만
- **형식** 레일로드 부분 샌드박스
- **배경** 19c 중반 서양, 판타지
- **플레이 시간** 8~10시간+α (RP에 따라 몹시 유동적)
- **플레이 난이도** ●●●○○ (능동적인 편이 좋습니다)
- **키퍼링 난이도** ●●●●○ (숙지 정보, 기믹 多)
- **추천 기능** 관찰, 대인기능 등
- **전투 요소** 없음
- **로스트 요소** 선택에 따라 KPC만 있음
- **트리거** 사람 및 동물의 죽음
- **추천 관계** 관계를 크게 타지 않습니다. 소관/협관/초면/구면/이성/동성 전부 플레이 가능합니다.
- **테스트 플레이** 完

주의사항

- 기본 [공지사항](#)을 꼭 숙지해 주세요.
- 서로의 관계성을 무어라 형용할 수 없지만, 지독하게 얹혀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확률이 높은... 선 결혼, 후 연애(?) 빠그라진 정략결혼 스토리입니다.
- 스토리 상, 키스 이하의 신체 접촉이 다수 발생합니다. 스킨십 진도를 빼고 싶었던 페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키스 이상의 행위를 진행할 시, 필히 플레이 전에 합의해 주세요. 시나리오 자체는 15금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시나리오 내에선 탐사자가 신붓감 역할을 하게끔 집필되어 있습니다. 데릴사위로 개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구면으로 진행 시, 협관이거나 KPC가 탐사자에게 큰 애정이 없는 편이어야 플레이가 수월합니다. 물론 플레이하시다가 정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소관이어도 구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변 방향성은 진상을 확인해 주세요.
- 크툴루적 호러 요소가 적고 볼륨이 있는 편이며 RP와 조사가 많습니다.
- 시나리오 내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기믹이 존재합니다.
- 적극적인 개변 가능합니다. 단, 시나리오 내 기믹 등, 스포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 배포하지 말아 주세요.

- 시나리오 내 세계관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재량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에 관한 질문 받지 않습니다.

탐사자 정보

- 대대로 호위 기사를 배출하던 가문의 자녀입니다. 귀족이 사병을 가질 수 없게 된 후로 가문이 몰락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문은 정략결혼을 적극 수용하며 가문의 부흥을 노립니다.
- 탐사자는 자신을 부흥 수단으로만 여기는 가문에서 늘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종종 과감한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도로 잡혀오고 말았습니다.
- 탐사자의 소원은 '자유'입니다.
- KPC와 구면일 경우, 근 5년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해선 자유롭게 상의하여 정해 주세요.

KPC 정보

- 본 시나리오 한정, 나이를 25살로 설정해 주세요. (나이 변경 가능합니다. 진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 명망 있고 부유한 귀족가의 가주입니다. 작위는 자유롭게 정해 주세요. 시나리오 내에서는 '후작'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5년 전, 가족 및 친인척이 전부 사망한 이후부터 외출을 전혀 하지 않으며 저택에서만 머뭍니다. 단단히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요에 해당되는 도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상은 포함되지 않지만, 기믹 등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KP 예정인 분들만 열람해 주세요.

——본문 시작——

- 시나리오에는 스토리 위주로 적혀 있으니, RP 구간은 KP 재량으로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 정보성 지문이 무척 많습니다. RP로 바꿔서 사용하시거나 적절히 가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 시나리오에 서술된 KPC 행동 묘사와 말투는 KPC의 성향에 따라 개변해 주세요.

【Chapter.1】

휘잉—,

초겨울의 냉기가 응접실 창틀을 넘실 넘어와 단정히 줄지어 서 있는 당신과 형제들의 옷깃에 파고듭니다. 어깨가 흠칫 움츠러들 만큼 싸늘한 바람이네요. 그에 응접실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사용인들에게 청소를 지시하던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아버지 : “곧 후작님이 들어 오실 텐데 응접실이 냉골이나 다름없다니!”

그의 불호령에 사용인들이 다급히 창문을 닫아 냉기를 막습니다. 얼추 응접실을 쓸고 닦아 광을 내고 나면 기울어진 가세로 허름했던 공간이 그나마 봐줄 만해집니다. 이내 연신 화를 내던 아버지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냅니다.

아버지 : “자,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아. 다들 잘 듣거라. 곧 KPC 후작님이 오셔서 너희를 둘러보시고 신붓감을 고르실 거다.”

난데없이 들려온 소식에 형제들이 서로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아아, 어쩐지. 없는 살림에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가꾸고 질 좋은 의복을 입히더라니. 신붓감 차출에 내세울 목적이었나 보죠?

그러나 이런 줄 세우기가 이제껏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자식을 부유한 가문으로 하나 둘 팔아넘기는 아버지 덕분에 당신의 순위 형제들은 전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들 평소와 달리 놀란 이유는….

아버지 : “YYY(KPC 성씨) 가문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 이건 우리 가문이 부흥할 기회다. 반드시 그분의 눈에 들어 후작 가문과 연을 맺어야만 해!”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제들 사이로 숙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KPC 후작님이라면… 설마. 온 가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단단히 미쳐버렸다는 그 사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미쳐버려서 온 가족을 다 죽였다는 소문도 돌던데.”
“히익…! 나는 그런 살인자와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모두가 놀란 이유는, KPC에게 바로 이러한 소문이 붙어서 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KPC가 근 5년간 저택 밖으로 얼굴을 비치지 않고 칩거해 버렸다는 사실ைய요. 그런 그가 신붓감을 고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와중 정말 의아한 점은… 부유한 후작 가문의 가주가 굳이 몰락한 탐사자 가문에서 신붓감을 구할 이유가 있나요? KPC의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대단한 후작 가문과 엮이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날 텐데 말이죠.

[지능 판정]	
성공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무언가 꺼림칙한 속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어떠한 일을 벌이기 위해 뒤탈 없는 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라면...?
실패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무언가 꺼림칙한 속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을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톡톡 건드립니다. 바라보면, 당신의 1살 어린 동생인 레일라입니다. 레일라가 커다란 눈망울에 울음을 가득 담은 채 속삭입니다.

레일라 : “있잖아,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실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어.”

사시나무 떨 듯 온몸을 파르르 떠는 모습이 퍽 안쓰럽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유독 당신을 잘 따라 귀여워했던 동생이라 더 마음이 쓰이네요.

레일라 : “후, 후작님이 나를 고르시면 어, 어떡하지...? 흑...”

객관적으로 보아도 미모가 빼어난 레일라는 KPC의 마음에 들 확률이 높겠죠. 그 사실을 레일라도 잘 알고 있는지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공포에 질립니다.

그때, 돌연 응접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KPC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 “어서 오십시오, KPC 후작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쪽은 제 자식들입니다. 자, 다들 인사 올리거라.”

아버지의 말에 억지로 인사하고 나면 그제야 KPC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KPC의 외관을 묘사해 주세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한 올도 용서치 않고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칼과 곧은 이마, 직위에 걸맞은 고압적이고 날카로운 눈매, 현 기분 상태를 알려주는 듯한 비틀린 입술과 뼈뚫하게 기운 고개. 찢러도 피 한 방울 흘러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사람입니다.

그뿐일까요?

목 끝까지 단단하게 잠겨있는 단추와 손목조차 보이지 않게 끼고 있는 장갑 따위가 유독 이질적입니다. 초겨울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감쌀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마 얼굴마저 가렸다면 그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KPC의 모습은 마치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철옹성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는 우리의 인사를 본 체 만 체 하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KPC : “여기서 고르면 됩니까?”

신봇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축을 고르러 온 상인처럼 턱끝으로 우리 쪽을 가리킵니다. KPC의 등장에 비굴하게 등을 굽힌 아버지는 제 자식들을 가축취급하든 말든 두 손을 맞비비느라 바쁩니다.

아버지 : “아직 혼기가 차지 않은 녀석들도 있지만, 후작님께서 데려가 주신다면야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

당신과 레일라를 제외한 형제들은 14살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나 다름없음에도… 가문 부흥에 눈이 먼 아버지는 KPC가 원하면 몇 명이고 다 팔아넘기고 싶은 눈치입니다.

아버지 : “그럼 모쪼록 편히 고르십시오!”

곧 KPC가 우리의 면면을 차례차례 훑어보기 위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형제들 중 나이가 제일 많아 맨 앞줄에 서 있던 당신의 앞에서 잠시 걸음이 느려지나 했지만…, 이런. 착각이었을까요? 곧이어 미련 없이 지나간 발걸음은 예상했다시피 레일라 앞에서 우뚝 멈춰 섭니다.

레일라 : “흑! 흑흑…”

손을 뜯으며 초조해하던 레일라가 제 앞에 멈춰 선 KPC의 행보에 깜짝 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KPC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보아도 KPC의 선택을 극렬히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레일라를 바라보는 KPC를 살피면…

[관찰 판정]	
성공	그의 눈빛엔 레일라를 측은해하는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신붓감을 향한 시선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축을 고르러 온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요.
실패	도통 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은 다 보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더 가깝겠네요. 레일라가 제 앞에서 울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말이에요.

탐사자. 이대로라면 KPC는 레일라를 골라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 본인이 직접 신붓감으로 나선다/ 일부러 시선을 끈다 등등
(탐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수가 꽤 잘 먹힌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심히 레일라에게만 꽂혀있던 시선이 드디어 당신에게로 향했으니까요. 머지않아 KPC는 느긋하게 당신의 앞으로 와 섭니다.
- 가만히 있는다
레일라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신 나서줄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또한 정략결혼이 싫은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 레일라의 앞에 서 있던 KPC가 발걸음을 돌려... 당신 앞에 섰다는 사실이죠.

당신을 머리끝부터 발 끝까지 탐색하는 시선이 길게 느껴집니다. 곧 장갑 낀 손이 다가와 당신의 턱을 무례하게 잡아 들어 올립니다. 풀을 잘 먹인 가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듯 고개를 상하 좌우로 돌려가며 살펴보더니,

KPC :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뱌으며 획, 하고 턱을 놓아줍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레일라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잠시 얼 뉘 표정을 짓다가 곧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 “예? 엇, 네, 네! 그 녀석 이름은 ‘탐사자’라고 합니다. 그으… 그럼 결혼식은-”

KPC : “결혼식은 생략하죠. 내 저택으로 바로 데려가고 싶군요. 지참금은 됐고, 신붓값은 조만간 마차에 실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 “헉! 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하하!”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꾸며낸 인신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당신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러곤 KPC가 듣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 “탐사자. 후작님께 가서는 여기서처럼 난동 피우던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리 가문과 네 형제들을 위해 암전히 살거라.”

자유를 찾기 위한 탈출 모색을 그저 ‘난동’이라고만 표현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치가 떨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당신은… 아무런 힘도, 재력도 없는 존재인걸요. 그저 신붓값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가축과 다름없는—….

【Chapter.2】

다그닥, 다그닥—

규칙적으로 들리던 말발굽 소리가 차츰 느려집니다. 마차에서 바라보는 창 너머에서 지긋지긋하게 비추던 숲이 끝나가고, 곧이어 광대한 부지를 자랑하는 위엄 어린 저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후작이란 직위에 걸맞은 품격과 고아함을 담고 있는 저택은 그 자태가 훌륭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하고 우중충합니다. 아아? 그 이유론 정원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곳보다 겨울을 일찍이 맞이한 것 같은 정원은 초록빛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메마르거나 죽었기 때문이죠.

정원 관리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일부러 하지 말라고 했는진 알 수가 없네요. 물어보고 싶어도,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당신 혼자 뿐입니다. KPC는 말을 타고 갈 거라며 합승하지 않았죠. 탐사자 가문과 거리가 꽤 멀어서 분명히 올 때는 마차를 타고 왔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 시커먼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네요.

기분이 어떨가요, 탐사자? 신붓감으로 팔려 온 소감 같은 것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의 입구를 통과한 마차는 정문 앞까지 다다라서야 멈춥니다. 겹싸게 다가온 사용인이 마차 문을 열어주자, 당신에게 인사도 없이 홀로 저택으로 들어가 버리는 KPC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참나. 신붓감으로 억지로 끌고 왔으면 사용인들에게 인사라도 시켜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 한번 강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콜린 : “어서 오세요, 탐사자 님. 저는 탐사자 님을 모시게 된 콜린이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바로 휴식할 곳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만… 주인님께서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하셔서요. 저와 함께 가실까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콜린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안쪽은… 바깥에서 보았을 땐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저 멀리 보이는 복도 끝까지, 온갖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일까요? 왕립 도서관도 이 정도의 서적을 구비해 놓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서적 표지를 확인할 경우, [관찰 판정]	
성공	지나가면서 빠르게 스쳐 본 거라 정확하진 않아도, 표지에 그려진 문양 등을 보면 평범한 시집이나 소설책 같지는 않습니다. 마법에 관련한 책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실패	지나가면서 빠르게 스쳐 본 거라 정확하진 않아도, 표지에 그려진 문양 등을 보면 평범한 시집이나 소설책 같지는 않습니다.

콜린에게 이유를 물어볼 경우 >

- 주인공께서 사들인 서적들이다.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 주인공께 직접 여쭙어 보는 게 좋겠다.

《응접실》

콜린 : “이곳이 응접실입니다.”

콜린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우선적으로 맞이해 주는 것은 코끝에 훅- 하고 끼치는 먼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비해 두는 곳임에도 이곳 역시나 군데군데 책더미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서적이 내뿜는 퀴퀴한 책먼지가 시야를 부영게 만듭니다.

그때, 중앙 쪽에서 두어 번 기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을 바라보자,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KPC가 입에 대고 있던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곤 제 앞의 소파를 손가락질합니다. 음... 아마, 앉으라는 뜻인 것 같네요.

당신이 소파에 앉자, KPC는 예의 차린 인사치레 따윈 집어던지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KPC : “탐사자. 당신이 XXX(탐사자 성씨) 가문의 그 유명한 **천덕꾸러기 or 광견 or 망나니**(탐사자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개변 가능) 맞습니까? 걸핏하면 미친 사람처럼 집밖으로 도망친다던데.”

종종 당신의 가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긴 했지만... 저런 소문이 도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KPC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 아버지가 자식들 정략결혼시키는 것에 반쯤 미쳐있다고 하더군요. 설마 그것에 반항하기 위해서?”

(탐사자가 뭐라 답하든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KPC : “뭐, 이유는 그리 중요치 않아요. 다만 나와 결혼한 이상, 이곳에서도 그러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굳이 당신을 골라온 이유도 사라지게 되고.”

(RP 타임입니다. 아래 질답을 참고하여 RP 해 주세요.)

Q. 결혼한 이유가 뭔지 / 굳이 나를 고른 이유가 뭔지

- 긴히 제안할 것이 있어, 결혼 상대가 꼭 탐사자여야만 했다.
- (레일라를 선택하려들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결혼을 약속한 다른 이가 존재한다고 들었다.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내 제안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당신을 설득시키는 쪽이 더 수월해 보였다.

Q. 제안?

-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심한 결벽증]**을 앓고 있다. (장갑 낀 손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 병을 **[저주]**라고 부른다. 내 인생을 송두리 짜 집어삼켰기 때문에.
- 온갖 약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 약으로는 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수소문해 보니, **[마법의 힘]**을 빌리면 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
- 때문에 온갖 주문서를 사들여 조사해 보았으나 한계에 가로막혔다.
-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주문이 반드시 **[시전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결벽증에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어서 하나하나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

KPC : “그래서—,”

끼이익, 가죽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함께 당신 앞으로 느릿하게 걸어오는 KPC가 두 손을 뻗습니다. 섬세하게 바느질된 고급스러운 장갑에 감춰진 손이 당신의 귓가를 아슬하게 지나쳐 등받이를 잡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고개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베일 듯한 턱끝으로 창틀에서 넘어온 노을빛이 유려한 선을 그려냅니다. 어쩐지 현실성 없는 그 광경에 멍하니… KPC가 하는 양을 지켜만 보게 됩니다.

KPC : “내가 하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닿을 듯, 말 듯 다가온 얼굴이 당신의 뺨을 위태로이 지나쳐 귓전에 이릅니다. 평소보다

가빠진 호흡에 들이닥치는 낯설고도 진득한 향기가, 아른한 숨결이, 당신의 귓전에서부터 말단까지 생소하고도 저릿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이내 KPC가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KPC : “내 저주를 풀어주면 전재산을 넘겨 줄게요. 군말 없이 이혼도 해주고. 어때요. 당신에게도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심장이 멎어버릴 만큼 가깝게 다가온 KPC가 당신의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지는 꽤 단순하네요.

그와 결혼한 상태로 자유를 잃고 평생 미쳐버릴 것인지, 저 미친 것 같은 거래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탐할지... 단 두 가지뿐이니까.

(탐사자라면 응당 거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여 수락하기 전에 ‘수백 가지의 방법’이 뭔지 물어보는 탐사자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적절히 차용하여 매끄럽게 진행해 주세요.)

당신이 수락의 의미를 비치자, 내내 표정이 없던 KPC의 입가에 미미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KPC :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럼 우리의 거래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죠. 당신에게 전재산을 넘겨주겠단 말은 허풍이 아니라서.”

그렇게 당신에게서 다시금 멀어진 KPC가 깃펜과 계약서를 건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탐사자와 KPC는 저주를 푸는 일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한다.
2. KPC는 저주가 풀리는 즉시, 탐사자에게 토지/저택/금융 자산을 전부 넘겨주고 이혼해 준다.
3.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탐사자와 KPC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의 신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맨 아래에는 KPC와 당신의 서명을 적어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KPC는 탐사자에게 옆에 쌓여 있던 책더미에서 아무 책을 집어 건네줍니다.)

KPC : “보면 낙엽이나 꽃 따위가 책갈피처럼 꽃혀 있죠?”

그의 말마따나, 바싹 마른 꽃이 책 사이에 짓눌려 압화 되어 있습니다. 흘깃 쌓여있는 다른 책들을 보자, 이처럼 압화 된 책갈피가 수천 권이나 되는 책에 꽃혀 있네요. 압화 책갈피를 이렇게나 많이 구매해 둔 것일까요? 대단하네요.

KPC : “그건 내가 이미 그 책에 쓰인 주문을 확인해 봤단 뜻이에요. 꽤 많은 시간을 들여 확인해 봤지만, 아직도 확인 못한 수천, 수만 권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는 당신도 시간이 날 때마다 책갈피가 꽃혀있지 않은 책 위주로 조사하며 새로운 주문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KPC : “그럼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만 자도록 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찾은 주문을 하나씩 시험해 봤으면 좋겠군요.”

곧 KPC가 종을 흔들어 콜린을 부릅니다. 당신이 나가는 뒤로 간헐적인 기침소리가 들려옵니다.

(콜린과 함께 <탐사자 침실>로 이동합니다. KPC와 부부이긴 하지만 동침하진 않습니다.)

《탐사자 침실》

저택의 온갖 곳이 책 천지라, 혹여 당신의 침실까지 그 꼴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막상 이곳은 평범하게 깔끔합니다. 아, 물론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죠. 그야 이곳은 무려 후작 부인의 침실이니까요.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값비싼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들로 가득합니다. 침대, 소파, 테이블, 옷장 등등.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것들에 달린 작은 장식마저 섬세하게 조각되어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길가에 차이는 돌마냥 당연하다는 듯이 보석 따위가 수없이 박혀 있습니다. 벽면엔 이름을 들어봄 직할 실력의 화가가 그린 벽화로 휘황찬란하고, 문짝과 문틀, 심지어 사소한 경첩마저 무척 고풍스럽습니다.

이런 가문의 전재산이라 하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가문이 당신을 영영 찾지 못하게끔 평생 숨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아니, 여차하면 KPC와 이혼하고 이 저택에서 그를 쫓아낸 채 평생 거들먹거리며 살아도 될 정도의 재력일 겁니다.

KPC의 결혼 상대로 눈에 띄어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의 여신은 당신의 손을 들어주고야 마네요.

그럼 이만 슬슬 자볼까요?

【Chapter.3】

무거운 눈꺼풀 너머로 밝아온 햇살이 내리쬡니다. 아… 커튼을 닫는 걸 깜박했나 봐요. 더 자고 싶지만 도통 눈이 부셔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구름이라도 지나가는지 돌연 눈꺼풀 너머가 다소 어두워집니다. 덕분에 구름이 지나가는 틈을 타 더 잘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나… 가물가물 다시 잠들락 말락 한 차에, 한참이 지나도 구름이 지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얇은 기침 소리도 들리는 것이….

그것이 이상해서 천천히 눈을 떠 보면… … …!!!??? 난데없이 KPC의 눈동자와 마주칩니다. **【이성 판정 (0/1)】**

KPC : “쿨럭, 쿨럭. 대체 언제까지 자는 거예요. 나와 계약한 건 그새 잊었나. 원래 이렇게 잠이 많아요? 이거… 순 게으름뱅이를 부인으로 골라와 버렸네.”

KPC가 손수건으로 기침이 튀어나오는 입을 가린 채 불멘소리를 중얼거립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찾아온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아침부터 왜 찾아왔느냐고 묻자, KPC는 허락도 없이 침대에 걸터앉습니다. 그러곤 직접 챙겨 온 듯한 책을 주섬주섬 펼치며 자신이 찾은 주문을 보여줍니다.

KPC : “곧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잠이 안 와서 새벽 내내 주문을 찾았거든요. 빨리 시험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 **(명칭 설명)** 술자 = 탐사자, 대상 = KPC 입니다.

[주문 시전 방법]

1. 술자와 대상이 손각지를 낀다.
2. 서로의 왼쪽 눈을 바라본다.
3. 술자가 대상을 향해 시전어를 읊는다.

시전어 : ‘부패한 사슬을 끊어내고 관문을 열라, 막힌 샘물이 터지고 새 생명이 피어오르리라.’

(해당 주문 및 앞으로 등장할 주문들은 페어끼리 합의한 스킵 수위로 전부 개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선 엔딩 때까지 키스 이하의 수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게끔 쓰여 있습니다.)

주문이 쓰인 곳을 쿡, 하고 가리키는 손이… 왠지 낯섭니다. 대체 왜? 하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 장갑을 벗었네요?! KPC는 맨손으로 낡고 해진 책을 만지고 있습니다.

Q. 결벽증이 심하다면서 왜 장갑을 벗어두고 왔는지?

- 어차피 주문을 시전 하려면 장갑을 벗어야 하니까 번거롭기 싫어서.
- 어제 계약한 1번 조항 생각 안 나는지? 이 끔찍한 저주를 푸는 일에 쌍방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니 나도 노력 중인 거다.

시나리오 전문은 시나리오집 <키스톤 브릿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스카토닉 레포지토리 PDF 구매 링크

<https://www.drivethrurpg.com/en/product/489807/Korean---Keystone-Bridge>